

음악연구의 새로운 가능성, 음악문화콘텐츠 창작: “한국 근대가곡으로의 여행, 《봉선화》를 찾아서”

신 혜 승
(이화여자대학교)

I. 서론: 디지털 시대, 음악문화콘텐츠 개발의 당위성

새로운 밀레니엄을 맞이하면서 급격하게 발전하고 있는 디지털 환경은 음악연구의 가능성을 새로운 방향으로 확장시키고 있다. ‘디지털 인문학’(Digital Humanities)¹⁾이라는 개념 하에서, ‘음악문화콘텐츠’의 개발은 음악문화와 테크놀로지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문화가치를 창출한다는 점에서 주목해야 할 작업이다. ‘문화콘텐츠’(culture contents)란 한국에서 만들어진 신조어로서 국제적으로 서서히 통용되고 있는 용어인데,²⁾ 문화의 원형이나 문화적 요소를 발굴하고 그 속에 담긴 의미와 가치를 찾아내어

1) “디지털 인문학이란 정보기술(Information Technology)의 도움을 받아 새로운 방식으로 수행하는 인문학 연구와 교육, 그리고 이와 관계된 창조적인 저작 활동을 일컫는 말이다. 이것은 전통적인 인문학의 주제를 계승하면서 연구 방법 면에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연구, 그리고 예전에는 가능하지 않았지만 컴퓨터를 사용함으로써 시도할 수 있게 된 새로운 성격의 인문학 연구를 포함한다. 단순히 인문학의 연구 대상이 되는 자료를 디지털화 하거나, 연구 결과물을 디지털 형태로 간행하는 것 보다는 정보 기술의 환경에서 보다 창조적인 인문학 활동을 전개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디지털 매체를 통해 소통시킴으로써 보다 혁신적으로 인문 지식의 재생산을 촉진하는 노력이다.” 김현, “디지털 인문학: 인문학과 문화콘텐츠의 상생구도에 관한 구상,” 『인문콘텐츠』 29 (2013. 6), 12.

2) 김기덕, “자료의 힘과 역사적 상상력: 역사학과 문화콘텐츠,” 『인문학과 문화콘텐츠』 (서울: 다할미디어, 2006), 74.

매체(on-off line)에 결합하는 새로운 문화의 창조과정이라고 정의되고 있다.³⁾ 이렇게 문화와 과학의 융합을 통한 새로운 문화가치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이 용어를 음악문화에 적용하여 ‘음악문화콘텐츠’(musical culture contents)로 확장함으로써 음악연구가 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 중 한 가지를 제시해 보고자 하는 것이 이 논문의 목적이다.

한국가곡의 원형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작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음악유산의 발굴과 체계화에 머물지 않고, 그 활용에 있어 한 단계 더 나아가 한국가곡을 주제로 한 음악문화콘텐츠를 만들어 보고자 한다. 앞으로 음악연구자들은 음악문화와 기술기반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연구방법을 개척해 나가야 할 것인데, 이러한 의미에서 “한국 근대가곡으로의 여행, 《봉선화》를 찾아서”라는 음악문화콘텐츠 기획은 역사적 정보와 자료들을 단순히 디지털화 하는 차원에서 벗어나 스토리텔링의 형태로 구축된 콘텐츠로 개발하여 혁신적인 음악 지식의 재생산의 가능성을 보여줄 것이다. 더욱이 디지털 상에서 구축된 문화콘텐츠는 공간의 자유로움이 있고 매체간의 전이가 용이하기 때문에 잘 짜여진 음악문화콘텐츠들은 문화전파와 교육효과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가치를 드러내게 될 것이다.

한편, 콘텐츠를 제작하는 연구자가 완성된 음악문화콘텐츠를 제공할 수도 있지만, 아이디어와 주제 그리고 기본 틀만 제공하고, 관심 있는 학자들이나 일반인들을 참여시킴으로써 그 내용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 수도 있다. 그리고 이러한 콘텐츠는 연구자들은 물론 일반인들도 향유할 수 있는 콘텐츠가 될 수 있다. 즉 문학에서의 하이퍼텍스트(hypertext)⁴⁾ 개념이

3) 심승구, “한국 술문화의 원형과 콘텐츠화,” 『인문콘텐츠학회 학술심포지엄 발표자료집』 (2005), 55.

4) “하이퍼텍스트라는 용어는 넬슨이 1960년에 비순차적 글쓰기(non-sequential writing)를 의미하는 신조어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읽기에 단 하나의 통로만 허용되는 전통적인 텍스트를 대신하여 다중적인 독서로를 제공하여 독자 나름대로의 결말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선택권이 주어진, 복잡하게 얽힌 망을 의미한다. [...] 지식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독자의 역할을 증대시키고 나아가 독자를 새로운 저자로 변모시키는 새로운 체계이다.” 장노현,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이야기 형식: 하이퍼텍스트 서사』 (서울: 예림기획, 2005), 45-46.

수용되어 전문성과 대중성이 조화된 풍성한 콘텐츠로서 그 가치를 드러내게 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음악문화콘텐츠를 통해 전문성과 대중성, 사실과 허구의 경계를 자유롭게 넘나드는 새로운 형태의 문화 향유가 가능해 질 것이며, 이것은 놀이와 학습을 구분할 필요 없이 그것들이 한 데 어우러진 복합적인 문화현상으로 기능하게 될 것이다.⁵⁾

II. 연구자의 정체성 위치

음악문화콘텐츠를 개발함에 앞서 먼저 논의해보고 싶은 것은 연구자의 정체성이다. 자료의 수집과정에서부터 선택, 해석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 연구자의 정체성이 관여되기 때문이다. 역사적 사실을 활용하는 문화콘텐츠는 물론 역사서술에 있어서 학자들은 역사적 사실, 역사적 진실, 역사적 상상력 등에 관한 많은 논쟁들을 벌여왔다. 그 동안 연구자들은 역사적 사실을 밝히기 위해 다양한 자료를 기본으로 이용하면서 이 자료들이 그 자체로 객관적이고 논쟁의 여지가 없다고 믿어왔다. 그러나 수많은 자료들로부터 그것을 골라내는 선택은 피할 수 없이 우리의 관심사를 나타내는 자의적인 것이다. 하나의 사실에 역사적인 중요성을 부여하는 것이 바로 그 선택이고, 그 선택은 그것을 유도하는 학자의 해석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역사적 증거가 가공되지 않은 원재료라고 한다면, 이것을 자르고 모양을 만들어 상상하는 이미지로 만들어가는 것이 연구자들이 하는 일이다. 이때 연구자의 사상, 감정, 관심사에 대한 흔적이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역사는 인간 지식의 객관적 산물이라기보다는 현재의 갈망을 표출하여 실현하는 주관성의 산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일찍이 하인리히 베셀러(Heinrich Besseler, 1900-1969)는 자신의 저서 『중세와 르네상스의 음악』(*Die Musik des Mittelalters und der Renaissance*)의 서두에서 역사학의 핵심문제를 다루었는데, 그 문제의 원인을 다음과 같이 설명

5) 김현, “디지털 인문학: 인문학과 문화콘텐츠의 상생구도에 관한 구상,” 『인문콘텐츠』 29 (2005), 22.

하였다.

19세기에는, 고음악은 살아있는 전통으로서, 단지 고립된 흔적 안에서 활발한 존재성을 가지고 있었다. 이것 모두 하나의 현상으로서 재발견 되어야 했지만, 이 발견은 현재의 필요와 바람에 의해 유도되었다. 현대성이 제공하지 못했던 것은 역사에서 추구되고 발견되었다. [과거의] 이미지는 그 자신이 원하는 꿈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고, 선택과 해석, 평가와 인지는 그 자신의 완성을 위해 과거를 동경한 시대의 아이디어에 의해 결정되었다. 역사를 고려하지 않고는, 그러한 발견들 이면에 있는 동기들을 밝히고 이전 시대들의 유산이 한 시대에서 다른 시대로 통과하며 겪는 다양한 재해석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임무를 간과하게 될 것이다.⁶⁾

베셀러에 따르면, 고음악의 재발견은 연구자의 무의식적인 필요와 갈망, 원하는 꿈, 그리고 성취에 대한 동경에 의해 유도되었다는 것이다. 즉 과거의 음악에 대한 연구는 현재의 필요와 바람, 꿈, 동경에 의한 재발견인 것이다. 따라서 역사적 진실성은 객관적인 것이 아니라 형이상학적인 실재로서, 경험적으로 알려지는 것이 아니라 가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⁷⁾ 즉 역사는 상상의 산물인 것이다.

역사가 상상의 산물이며 현대의 갈망을 표출하는 것이라고 볼 때, 기존의 역사학자들은 물론, 과거의 자료와 정보들을 콘텐츠화 하고자 하는 연구자들의 정체성 위치는 나르시스적 충동으로 설명될 수 있다. 일찍이 많은 학자들이 역사학자의 자세와 나르시스 신화를 비교하여 설명해 왔는데,⁸⁾ 역사가들의 작업방식은 나르시스 신화의 의미와 많이 일치하며 지금

6) Heinrich Bessler, *Die Musik des Mittelalters und der Renaissance* (Potsdam: Akademische Verlagsgesellschaft Athenaion, 1931), 3; Rob C. Wegman, "Historical Musicology: Is It Still Possible?" in *The Cultural Study of Music*. Edited by Martin Clayton, Trevor Herbert and Richard Middleton (New York: Routledge, 2003), 138.

7) Rob C. Wegman, "Historical Musicology: Is It Still Possible?" in *The Cultural Study of Music*, 137.

8) Martin L. Davies, "History as Narcissism," *Journal of European Studies*

의 콘텐츠 관련 연구자들의 작업방식과도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나르시스처럼 물에 비친 그 이미지가 바로 자신이었다는 것은 곧 과거의 음악에 대한 연구가 바로 현재의 우리 이미지를 형상화한 것이라는 점과 일맥상통하기 때문이다. 특히 콘텐츠 관련 연구자들은 데이터마이너, 지식 코디네이터, 스토리텔러 등의 명칭으로 세분될 수 있는데, 이들이 자료와 정보를 선택하고 새롭게 조합하며 서사를 입히는 과정들은 자신이 사는 현실에서 의미 있는 구성체로서 기능하기를 바라는 자기애적인 성향의 발현이라고도 볼 수 있다. 이것이야말로 주관성의 전형이며, 음악문화콘텐츠가 현재의 삶에서 사회적 기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이유이다.

나르시스처럼 물에 비친 그 이미지가 바로 자신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은, 즉 과거가 우리의 이미지로 형상화된 것이라는 점을 인식한다는 것은 과거를 잃어버린 것이라기보다는 발견적 가치로서의 의미를 찾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즉 과거는 객관적인 실체나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역사적인 상상, 우리의 주관성, 우리의 사랑을 끌어내는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다. 고음악 연구를 통해 나타나는 주관성의 산물로서의 역사적 상상력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에 풍부한 차원을 더하고 있다. 역사가 상상의 산물이라는 인식을 망상이라는 차원에서 거부하기 보다는, 과거의 정보와 자료들을 단순한 사실 이상으로 인식하여 그 문서에서 역사적인 의미와 중요성을 감지해야 할 의무가 생기게 되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역사적 상상력은 결국 우리자신이기 때문이다.

역사학의 기본 특성은 사료의 수집 및 정리, 사료비판을 통한 역사적 진실 추구, 보편성과 특수성에 입각한 인류의 풍요로운 자산의 발굴 제시 등을 들 수 있다. [...] 그러나 이러한 역사학의 장점은 자칫 제대로 추구되지 못했을 경우, 문화콘텐츠의 상상력을 제한하는 단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즉 자료의 무덤 속에 빠져 실증의 그물망 속으로 도피한 뒤, 역사적 근거만을 고집할 수 있다. 역사기록이 항상 객관적인 것이 아님에

19 (1989), 265-291; Rob C. Wegman, "Historical Musicology: Is It Still Possible?" in *The Cultural Study of Music*, 139.

도 불구하고 다양한 상상력을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할 수도 있다.⁹⁾

위와 같은 문제점들이 극복된다면, 생생한 과거의 이미지는 곧 현재성을 가지며 우리에게 전달될 것이며 이것은 우리의 삶을 대변해주거나, 미래를 예측해주거나, 혹은 삶의 또 다른 변주로서의 의미로 다가오게 될 것이다. 문화콘텐츠는 다양한 생활사, 인물사, 사회사의 내용을 풍요롭게 구성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 준다는 점에서, 경건하고 엄숙해서 다가가기 싫었던 이념에 예속된 역사가 아니라, 친근하고 편안하면서도 재미있기도 한 역사의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을 것이다.¹⁰⁾

따라서 필자는 음악문화콘텐츠 창작에 필요한 자료의 선택 및 해석, 역사적 맥락을 제시하고 서술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서구 헤게모니, 실증주의, 객관주의, 본질주의 관점에서 벗어나고자 한다. 물론 과거 사실에 관한 사료를 모으고 정리하며 그것을 비교 검토하여 해석하는 방법론에 있어서는 서구의 지식 전통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서구의 지식체계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시대를 읽는 대중적 감각과 역사적 지식의 교집합을 통해서 체득한 문화의 양가성과 혼종성이라는 정체성 위치를 바탕으로 음악문화콘텐츠를 의미 있게 개발해보고자 한다. 즉 기존의 서구 중심 지식 시스템을 바탕으로 하는 악보중심의 작품연구, 작곡가 연구, 장르사 연구 등에서 벗어나, 소리현상으로서만이 아닌 음악문화로서의 의미를 열린 눈을 가지고 해석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역사적 상상, 주관성에 대한 죄책감에서 벗어나 편파적, 부분적, 의도적 접근을 인정하여, 시학, 서사분석, 이야기하기 등을 포함한 다양한 문화적 기법들을 콘텐츠 개발에 폭넓게 사용할 것이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역사는 객관적 실체라기 보다는 현재의 필요와 바람, 꿈, 동경에 의해 재발견된 상상의 산물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음악문화콘텐츠 창작은 결코 중립적이거나 순수하지 않은

9) 김기덕, “자료의 힘과 역사적 상상력: 역사학과 문화콘텐츠,” 『인문학과 문화콘텐츠』, 50-51.

10) 김기덕, “자료의 힘과 역사적 상상력: 역사학과 문화콘텐츠,” 『인문학과 문화콘텐츠』, 57.

주관성의 소산이다. 따라서 필자는 유동하는 공간과 교차하는 다양한 경계들에 대해 열린 눈을 가지고 해석하고자 한다. 이것은 보이지 않고 말해지지 못한 의미들이 새롭게 드러나는 창조의 공간에 대한 연구가 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과거 음악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베셀러가 언급했던 19세기 음악사가들이 가지고 있었던 과거음악에 대한 필요, 갈망, 꿈, 그리고 동경보다 더 간절하다고 말할 수 있겠다.

III. 음악문화콘텐츠 창작의 단계와 방법들

음악문화콘텐츠라는 것은 학제 간 융합을 기본으로 하는 분야로, 인문학적 구성력에 기술, 디자인, 문화산업적 측면이 서로 밀접히 관련되어 만들어진다. 더불어 음악문화를 의미 있게 이끌어 나갈 역사적 안목과 창의력도 요구된다. 따라서 음악문화콘텐츠 관련 연구자들은 인문학적인 소양을 바탕으로 기술과 디자인, 영상과 내러티브,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문화콘텐츠산업과의 연계를 끊임없이 모색해야 한다. 이를 위해 먼저 디지털 환경에 의해 음악연구의 외연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세 단계로 나누어 살펴보고, 이를 통해 음악문화콘텐츠의 위치와 의미, 나아갈 방향을 점검해 보고자 한다.

첫 번째 단계는 기초자료 수집, 분류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의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다양한 음악원전자료들(악보, 가사, 문헌, 기록 등)이 데이터베이스로 저장되어 인터넷을 통해 제공된다. 예를 들어 국립중앙도서관 원문정보 데이터베이스(<http://www.dibrary.net>)나 이화여자대학교 음악연구소 토대연구팀의 “근대 동아시아 음악교육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프로젝트로 만들어진 이화음악데이터베이스(<http://emusicdb.info>) 등을 들 수 있다. 이 단계에서의 디지털 음악연구의 의의는 음악관련 원전정보를 디지털콘텐츠로 치환하여 흩어져 있어 찾아보기 어려웠거나 손상의 위험이 있어 제공되지 않았던 희귀 음악자료들을 어디서나 빠르고 간편하게 찾아볼 수 있게 하였다는 데에 있다. 디지털기술이 가져오는 편의성을 체감할 수 있는 부분으로, 이 단계에서의 디지털콘텐츠는 자신의 연구주제에

맞는 개개의 정보와 자료들을 이용하는 연구자들에게 연구의 속도를 높이게 할 수 있는 기능은 물론, 자료의 발굴과 수집이후의 확장 가능성과 음악문화콘텐츠를 구현시킬 기반구축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이 콘텐츠가 의미를 가진 콘텐츠로서 이용자들의 활용도를 높이게 하려면 단순히 파편화된 정보를 제공하는 단계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정보들을 연결하여 구성력을 가진 콘텐츠로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의 디지털콘텐츠는 온전한 음악문화콘텐츠를 만들기 위한 과정으로서의 의미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두 번째 단계는 콘텐츠가 가지고 있는 깊이를 심화시키기 위해 자료의 역사적 지식(해석이나 복원)을 제공하고, 음향, 이미지, 동영상 등으로 작품을 재생산하여 멀티미디어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의 디지털 음악연구는 자료의 발굴 및 수집에 머물지 않고, 연구 분석을 통해 정리하고 체계화한 정보를 디지털화하여 인터넷을 비롯한 다양한 매체를 통해 서비스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대표적 예로 한국콘텐츠진흥원(Korea Creative Contents Agency)의 주도로 2002년부터 2010년까지 이루어진 한국 전통문화를 소재로 한 다양한 기획과 창작을 들 수 있는데, 이 가운데 음악관련 콘텐츠로는 14개¹¹⁾의 콘텐츠가 제작되었다. 연구자들의 헌신적인 참여로 악학궤범, 고려가요, 아리랑, 산조, 종묘제례악 등의 한국음악문화의 원형이 디지털 기술을 통해 진화되어 웹상에서 제공되고 있다. 이러한 콘텐츠들은 문화콘텐츠산업 기반조성을 위한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다음의 단계로 이어져야 한다. 즉 첫 번째와 두 번째 단계의 디지털 자료와 분석들은 음악문화콘텐츠의 기초 인프라가 되는 것이므로, 이 단계들의 작업이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더욱 풍성한 음악문화콘텐츠가 탄생할 수 있다.

11)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현재 제공하고 있는 음악관련 콘텐츠는 악인, 오케레코드와 조선악극단, 고려가요의 디지털 콘텐츠화, 정간보, 한국근대의 음악원형, 겨례의 노래 아리랑, 백두대간의 전통음악원형, 음성원형 콘텐츠 웨어, 국악장단 디지털 콘텐츠, 디지털 악학궤범, 국악, 종묘제례악, 전통국악기 샘플데이터, 산조가 있다. <http://www.culturecontent.com> [2015년 2월 20일 접속].

세 번째 단계가 바로 음악문화콘텐츠 창작의 단계이다. 지금까지 디지털 음악연구가 한국 전통음악의 범주에서 문화원형을 발굴하고 디지털화시키는 데에 머물고 있었다면, 이제 그 테두리를 넘어 소재개발의 범위를 넓히고, 제시된 지식들 간에 서사적 연결을 갖도록 재구성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 또한 생산과 소비 환경의 변화로 인한 하이퍼텍스트 개념 도입으로까지 확장되어야 한다. 음악관련 콘텐츠 분야는 아직 두 번째 단계인 자료의 수집과 분류, 개별적 해석과 복원 및 해제집 발간이 이루어지는 정도에 머물고 있다.

음악관련 콘텐츠 분야와는 달리, 디지털 인문학의 분야에서는 이미 이러한 연구개발이 국내외에서 속속 진행되고 있다. 예를 들어 영국 셰필드 대학과 허트포드셔 대학은 런던시의 8개 아카이브에 소장된 자료를 담은 15개 기존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London Lives라는 인문콘텐츠를 편찬해냈다(<http://londonlives.org>).¹²⁾ 이 콘텐츠는 1690년부터 1800년 사이 런던에 거주했던 평민들의 삶과 관계된 고문서 24만 건을 디지털로 제공하고 있는데, 3백 35만 명 이상의 인물에 관한 교회의 기록물, 범죄와 재판에 관한 기록, 병원의 진료 기록과 검시 보고서, 상공인 조합의 기록, 빈민구제에 관한 기록을 담고 있다.¹³⁾ 이 콘텐츠는 기록들을 디지털화하여 제공하는데 그친 것이 아니라, 그 기록들을 토대로 런던의 하층민으로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재구성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여기에 이용자가 이들의 삶에 참여하여 글을 남길 수 있게 디자인했다. 첫 만 명 도시라는 위업을 달성했던 런던이 당시 근대 유럽인들에게는 어떤 의미의 도시였을까. 18세기 평민의 삶은 오늘날 영국인들에게, 혹은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를 던져주게 될까. 이 콘텐츠는 이러한 질문에서부터 시작하여 근대 평민의 삶을 데이터베이스 속의 기록들로부터 재구성해냈다. 여기서 제시된 평민의 삶에 대한 재구성은 오늘날의 문화로 치환되어 영화나 드라마, 다큐멘터리의 소재로 재탄생할 수 있다. 중요성이 크지 않았던 개개의 자료

12) 김현, “디지털 인문학: 인문학과 문화콘텐츠의 상생구도에 관한 구상,” 16.

13) 김현, “디지털 인문학: 인문학과 문화콘텐츠의 상생구도에 관한 구상,” 16-17; <http://londonlives.org> [2015년 2월 20일 접속].

들이 디지털 환경에서 연구자들의 노력을 통해 하나의 문화로 형성되어감이 느껴지는 부분이다.

음악연구 외연의 변화를 통해 나타난 음악문화콘텐츠 창작의 단계들은 데이터베이스 구축, 데이터마이닝, 지식 코디네이팅, 스토리텔링이라는 층위로 다시 설명될 수 있다. 요약하자면 음악문화콘텐츠는 수집, 추출, 분석, 조직, 의미화의 과정을 통해 완성되는 것이다. 먼저 데이터베이스 구축에는 수집된 자료들(기록, 악보, 가사, 음원, 동영상 등)을 체계화하는 기술적인 과정이 필요하다. 음악문화콘텐츠는 구축된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의미 있는 요소를 추출하고 그것을 분석, 종합하며 그 요소들의 관계를 밝히는 데이터마이닝의 단계와 인문학적으로 생산되는 지식을 디지털 콘텐츠로 조직화하는 지식 코디네이팅의 단계를 거쳐 사건의 서술을 통해 삶을 인식하고 표현함으로써 의미를 형성하고 소통하게 하는 스토리텔링의 과정으로 완성된다. 이때 각 단계의 전문가들, 즉 데이터마이너, 지식 코디네이터, 스토리텔러들은 자신이 사는 현실에서의 가치관, 역사관, 학문적·정치적 입장, 지식의 정도 등이 자신의 작업과정 속에서 표출될 수밖에 없음을 인지해야 한다. 이들의 이러한 인식은 오히려 사회에 의미 있는 역할을 수행하게 될 현실감각을 갖춘 콘텐츠를 창작하게 하는데 원동력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이 가운데 특히 스토리텔링은 콘텐츠를 의미 있는 구성체로 만드는데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라 할 수 있는데, 자료들의 맥락을 새롭게 창출해내는 이야기 속에서 인간은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며 또한 내가 누구이며 어떤 사람이고 무엇을 원하는지를 생각하게 되기 때문이다.¹⁴⁾ 따라서 스토리텔러는 인문학적 상상력을 바탕으로 자료와 자료 사이를 스토리 라인, 모티프, 등장인물, 캐릭터리제이션 등과 같은 다양한 분석도구, 표현 도구를 마련하여 디지털 표현양식에 맞춰 의미 있게 정리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탄생하게 되는 음악문화콘텐츠는 교육이나 대중의 문화향유에 있어서 새로운 정황을 펼쳐게 될 것이다.

14) 류철균, “스토리텔링, “소통하는 활동” “삶의 정체성 찾기.” 『문화일보』 2015년 1월 13일.

하나의 음악문화콘텐츠는 이용자들의 참여로 그 영역과 구성이 확대되어 최종적인 의미가 다양하게 변주될 수 있다. 콘텐츠 기획자는 이용자들의 활용패턴을 분석하여 문화의 트렌드를 읽어 내거나 새로운 트렌드를 예측할 수 있다. 즉 음악문화콘텐츠는 하나의 결과물이라기보다는 진행형으로 이루어지는 ‘디지털 환경 안에서의 문화 향유를 통한 새로운 관계 맺기’라고 할 수 있겠다. 지식체계의 새로운 판도가 펼쳐지는 현대의 스마트 미디어시대에, 음악문화콘텐츠의 창작은 “디지털미디어 중심으로 재편되는 지식유통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교육 및 대중의 문화향유에 기여하는”¹⁵⁾ 디지털 음악학으로서 기능하게 될 것이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음악학 연구라 정의할 수 있는 ‘디지털 음악학’은 다양한 연구 주제와 범위, 방법 등을 아우를 수 있는 개념인 동시에, 음악학을 연구하고 교육하는 방법상의 혁신을 지향하고 있는 용어라 할 수 있다.

교육 및 대중의 문화향유를 위한 음악문화콘텐츠 창출의 다양한 방법으로는 시각적 스토리텔링, 맥락화와 관계망 시각화, 멀티미디어와 지도의 연계, 네트워크 분석의 연계, 지리정보와 지도의 연계, 온톨로지 연계 등을 들 수 있다(<표 1> 참조).¹⁶⁾ 이 방법들은 콘텐츠의 주제에 맞게 몇 가지 방법들이 조합되어 적용될 수 있다.

15) 한국연구재단은 지난 2014년 10월에 디지털인문학 사업을 추진하면서 “디지털미디어 중심으로 재편되는 지식유통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교육 및 대중의 문화향유에 기여하는 인문학 디지털콘텐츠 개발을 촉진”한다고 사업목적을 밝혔다. 한국연구재단, 「2014년도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디지털 인문학 사업 신청요강」, (서울: 한국연구재단, 2014), 1.

16) 한국연구재단, 「2014년도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디지털 인문학 사업 신청요강」, (서울: 한국연구재단, 2014), 21-27.

〈표 1〉 음악문화콘텐츠 창출의 다양한 방법들

방 법	설 명
시각적 스토리텔링	전자지도, 사진, 영상, 음원 등 멀티미디어 기술과 함께 역사문화적 맥락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제시하는 방법
맥락화와 관계망 시각화	하나의 주제를 중심으로 그와 관련 있는 사건이나 인물, 유적, 유물, 개념 등을 추출하여 그 의미나 관계성을 정의하고 시각적 관계망으로 표현하는 방법
멀티미디어와 지도의 연계	사진이나 영상, 음원자료를 웹기반 지도 서비스에서 검색과 시각화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법
지리정보와 지도의 연계	인문지식 속의 지리정보를 즉각적으로 지도에서 볼 수 있도록 시각화하는 방법
온톨로지 연계	각 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융합하여 다양한 서비스나 어플리케이션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LOD (Linked Open Data) 형태로 데이터를 편찬하는 방법

음악문화콘텐츠 창작은 음악역사와 문화콘텐츠와의 관계 및 다양한 결합 양상을 바탕으로 한 디지털 환경에서의 음악학 연구이며, 이러한 개념 하에서 만들어진 음악문화콘텐츠는 정보와 지식을 연계 할 뿐 아니라 또다른 산업적 활용으로 연계시킬 수 있는 문화적 잠재력을 내재하고 있다. 즉 영화나 드라마, 게임 등의 시나리오 소재 개발, 공연의 아이템, 음악역사교육 자료 등으로 활용되어 문화를 이끌어 갈 수 있는 것이다. 디지털 기술과의 융합연구를 통해 이러한 지식들을 디지털 콘텐츠화하여 연구자들은 물론 일반인들까지 쉽게 향유할 있게 하는 것이 오늘날 연구자들의 새로운 과제가 아닐까 생각한다.

이제, 한국 최초의 근대가곡으로 알려진 《봉선화》를 중심으로 디지털 환경 내에서 역사적 정보와 접목시켜 인문학적 상상력을 바탕으로 한 음악문화콘텐츠 창작의 가능성을 시도해 보고자 한다. 디지털 환경 안에서 《봉선화》를 찾아가는 길에 만나는 다양한 양상들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던져주게 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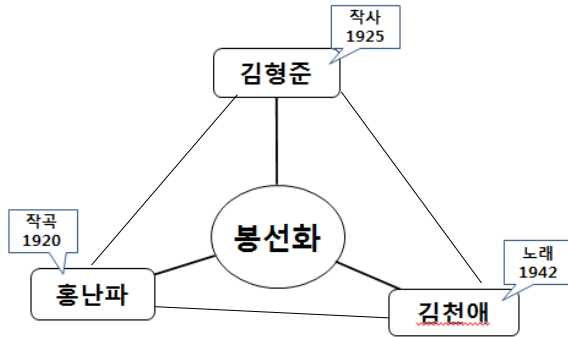
IV. 음악문화콘텐츠 기획 “한국 근대 가곡으로의 여행: 《봉선화》를 찾아서”

1920년~30년대에 불린 한국가곡의 주제와 흐름을 디지털 환경 안에서 서사적 방식으로 활성화시키는 음악문화콘텐츠를 기획해 보고자 한다. 즉 단순히 한국가곡에 대한 정보(인물, 악보, 가사, 음원)를 디지털 환경에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하는 매체 변환의 차원이 아니라, 정보를 내용에 따라 재구성하여 의미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지식화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다.¹⁷⁾ 디지털 환경 안에서 《봉선화》를 찾아가는 길에 만나는 다양한 양상들, 이것을 통해 한국근대 음악 역사를 생생하게 탐구하게 될 것이며, 새로운 역사의 공간이 창조될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봉선화》를 둘러싼 인물관계 네트워크를 만들 것이다.

한국 최초의 예술가곡 중 하나라고 여겨지고 있는 《봉선화》의 작사, 작곡, 노래에 대한 네트워크를 시각적 관계망을 통해 표현한다(그림 1). 과거의 음악에 대한 연구에 있어 인간은 사건을 구성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작품을 둘러싼 인물정보에 대한 구축은 필수적이다.¹⁸⁾ 음악자체보다 인물을 우선시 하는 이유는 작품자체는 객관적 실체처럼 보이지만, 그 작품이 당시 사회에 가지고 있었던 의미와 역할은 당시의 시대사와 함께 그 곡에 참여했던 작사가, 작곡가, 가수들의 활동에 의해 설명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죽고 사라져버린 역사적인 인물들에 대한 관계성을 정의하고 맥락을 시각화해 줌으로써 작품의 의미와 역할이 생생히 재현되는 것이다.

17) 윤인향, “역사문화콘텐츠에서 문화정보학,” (한국과학기술원 석사학위논문, 2009),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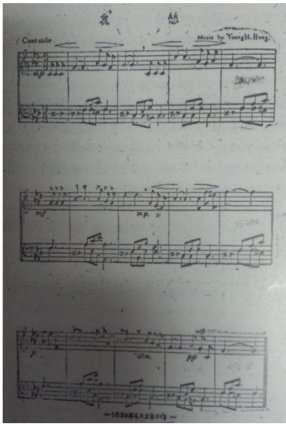
18) 윤인향, “역사문화콘텐츠에서 문화정보학,” 20-21.



[그림 1] 《봉선화》의 작사, 작곡, 노래에 관한 정보 초기화면에 제시될 내용

따라서 하나의 정보가 다른 정보와 맺고 있는 관계 즉, 인물과 인물 사이의 이야기를 서술한다. 인문학적인 서사는 OSMU (One Source Multi Use)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핵심요소이기 때문에 서사적 요소에 대한 탐구는 필수적이다. 이 부분에서 바로 인문학자들의 ‘역사적 상상력’이 발휘되어야 한다. 인물에 대한 개별정보, 인물과 인물의 관계성, 작품과 인물의 관계성에 대한 서사는 네트워크상에서 노드를 클릭하면 볼 수 있도록 한다.

《봉선화》 작품 자체에 대한 정보는 링크된 화면을 통해 자세히 제시한다. 주어진 시에 선율을 붙이는 서양의 리트와는 달리, 이미 쓰여진 선율에 가사를 붙여서 만들어진 것이라는 설명과 함께, 기악곡으로 되어 있는 원곡의 이미지와 그 후 가곡으로 출판된 악보를 제시하면서 노래의 당시 현황을 밝힌다[그림 2].



a



b

[그림 2] a. 원곡이미지(소설 『처녀혼』(1920)에 실린 애수),
b. 『세계명작가곡선집』 제1편 (1926년)

한걸음 더 나아가 다양한 버전으로 출판된 악보들을 디지털화하여 보여줌과 동시에, 당시 이 노래가 어떻게 불려졌는지에 대한 음원도 하이퍼링크로 연결한다. 또한 이 노래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다양한 가수들에 의해 어떻게 불려지고 있는지도 영상을 통해 제공한다. 예를 들어, 당시 김천애의 노래는 물론 오늘날 전 세계적 디바로 활동하고 있는 조수미의 노래음원이나 대중가수 조용필의 노래 등을 탐색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이 노래가 다양한 장르로 시대를 초월하여 불려지고 있음을 느낄 수 있게 해준다. 이를 위해 단순히 원곡의 이미지를 디지털화 한 것에 머물지 않고 주석을 부가하여 관련 있는 사람을 더욱 연결시키고 중요한 키워드는 다른 데이터베이스에 하이퍼링크로 연결되도록 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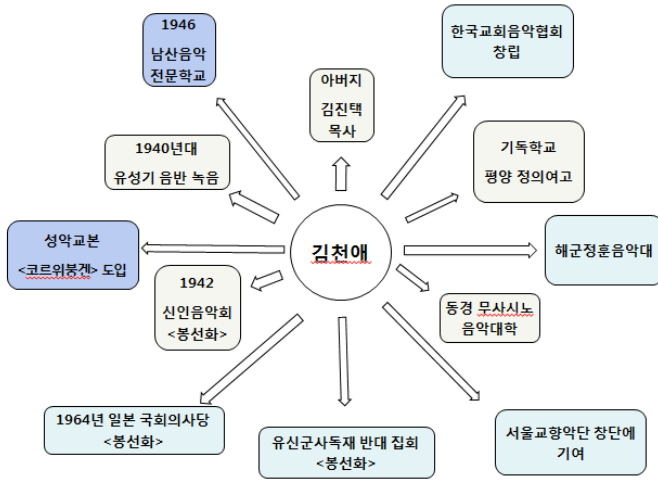
이처럼 인물과 사건, 사진, 영상, 악보, 음원 등이 엮여져 있는 다양한 관계성을 디지털 미디어 안에서 활성화시켜야만 다이내믹한 음악문화콘텐츠로서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즉 음악문화콘텐츠는 하나의 이야기가 디지털미디어 안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변용되어 생성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봉선화》에 대한 악보와 음원, 영상 등을 통한 시청각적 스토리텔링은

이용자들로 하여금 자료들의 관계성과 그 안의 이야기를 따라 가며 다음과 같은 스토리 라인을 완성하게 만들 수 있다.

원래는 그의 첫 소설 《처녀혼(處女魂)》의 자필원고에 <애수(哀愁)>라는 제목으로 수록되어 있었다. 건반악기를 위한 이 기악곡 하단에 ‘1920년 4월 28일작’이라 쓰여 있다. 이후 김형준이 쓴 ‘봉선화’라는 가사를 여기에 붙여 《봉선화》라는 가곡이 탄생하게 되었다. 울밑에 처량하게 피어 있는 봉선화의 이미지가 일제하에서 신음하는 조선 민중을 상징한다는 이유로 이 가곡은 민족의 노래로 알려졌다. 특히 1942년 2월 일본 동경의 무사시노 음악학교를 졸업한 소프라노 김천애가 같은 해 4월 동경 히비야 공회당에서의 전일본신인음악회에서 《봉선화》를 열창함으로써 열렬한 환호와 벽찬 눈물로 감동을 자아냈다. 1943년에는 경성후생실내악단 단원이었던 김천애가 경상남도 삼천포 공연에서도 이 노래를 부를 계획이었으나, 일제에 의해 이것이 민족의식을 고취시킨다는 이유 때문에 금지된 노래로 처분됨에 따라 ‘봉선화=홍난파=민족음악가’로 알려지기 시작했다. 1920년에 작곡된 이후, 1926년 발행된 『세계명작가곡선집』 제1편과 1936년 『특선가요곡집』에 각각 실렸다.¹⁹⁾

다양한 자료를 인문학적인 재구성을 통해 제시하고 있는 콘텐츠 안에서 위와 같은 서사구조를 느끼며 문화를 향유하고 있는 이용자들 중에는 《봉선화》를 전파한 소프라노 김천애에 대해 더욱 궁금증을 가질 수도 있다. 따라서 김천애를 중심 삼아 그녀와 관련이 있는 인물, 사건, 문헌, 기관 등을 추출하여 그 의미와 관계성을 정의하고 이것을 디지털 상에서 시각적 관계망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다. 즉 이야기 속에서 김천애를 둘러싼 음악환경이 네트워크로 활성화될 수 있게 만드는 것인데, 예를 들어 김천애를 둘러싼 음악활동 네트워크를 시각적 관계망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그림 3].

19) 김창욱, 『홍난파 음악연구』(서울: 민속원, 2010), 49-51; 노동은, “홍난파,” 『친일파 99인』 제3권(서울: 돌베개, 1994), 109-1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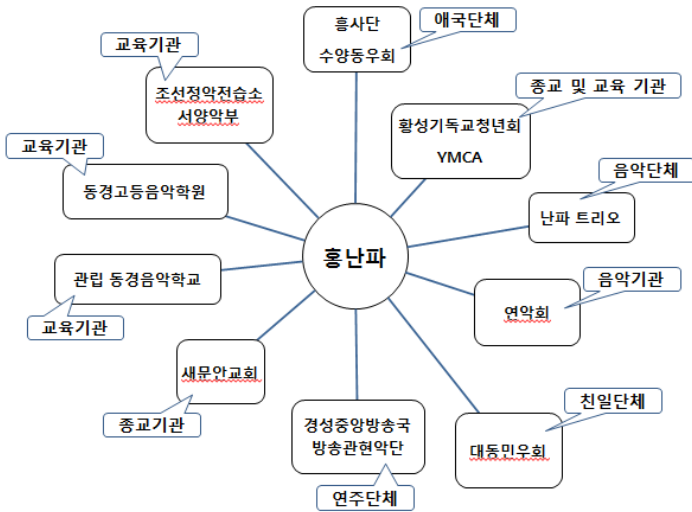
[그림 3] 김천애를 둘러싼 음악활동 네트워크의 시각적 관계망

이 관계 그물망을 통해 김천애가 한국 근현대 음악사에서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역할을 해냈는지를 먼저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 자세한 관계성은 각 항목마다의 링크를 통해 제공한다. 여기엔 이미지, 음원, 영상, 기사 등의 자료를 적극 활용하여 역동성 있게, 현재에 살아 있는 듯이 그려낼 수 있다. 즉 김천애를 둘러싸고 있는 네트워크상의 한 노드를 클릭하면 그 관련성에 대한 정보와 그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가 다양한 시청각자료와 함께 펼쳐지도록 하는 것이다.

처음에 김천애는 《봉선화》와 관련되어 가수로만 소개되었지만, 이후 《봉선화》를 통한 그녀의 영향력은 작곡자나 작사자가 가지고 있던 생각보다 훨씬 더 나아갔다는 것을 이 관계망을 통해 알 수 있다. 노드의 클릭을 통해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만날 수 있다. 즉 《봉선화》는 김천애에 의해 일제시기뿐 아니라 해방이후에도 일본에서, 혹은 우리나라 유신체제 시기에 의미 있는 장소에서 노래 불러 짐으로써 당시의 사회적 이슈를 더욱 크게 부각시키는 역할을 하였다는 내용을 제공하는 것이다. 당대의 노래로서 뿐 아니라 세월이 흘러도 《봉선화》가 그 사회에서의 문화적 역할을 묵묵

히 수행하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되는 순간이다. 이러한 역사적 정황을 디지털 상에서 관련 기사와 문헌, 교육기관의 데이터와의 공유 등을 통해 제공하면, 그동안 우리가 간과했던 노래의 사회 참여적 성향이 새롭게 느껴지게 된다. 이를 토대로 해방 이후 김천애의 활약상이 더욱 관심이 간다면, 네트워크가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음악환경이 이들의 활약에 대한 결과임을 디지털 공간을 통해 생생하게 체험하게 된다. 이용자들이 이 서사구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콘텐츠를 디자인한다면 김천애의 활동 뿐 아니라 그와 관련된 정황들, 다양한 인물들이 더욱 풍성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다. 즉 인쇄된 텍스트라면 불가능했을 하이퍼텍스트의 기능이 콘텐츠에 디자인된다면 더욱더 다양한 음악문화가 새롭게 창출될 수 있다. 여기에 더하여 이용자들의 활용패턴을 분석한다면 어느 항목, 어느 인물, 어느 사건, 어느 음악유산이 이용자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는지를 파악할 수 있게 되고, 이것을 통해 음악수용 경향과 음악시장의 흐름을 예측함으로써 공연기획, 작품창작, 음반제작에 큰 도움을 줄 수 있게 될 것이다. 더 나아가서 교육의 방향과 문화의 흐름을 주도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다른 차원의 네트워크를 활성화 시킬 수 있다. 작사가 김형준을 통한 네트워크는 또 다른 차원으로 우리를 이끌어 준다. 가사에 대한 정보 뿐 아니라 김형준의 음악활동 네트워크, 즉 김형준 주변의 인물이나 기관, 김형준이 쓴 다른 작품과의 관계성을 통한 이야기를 통해 당시 납북된 예술가들에 대한 정보나 이야기가 드러나게 될 것이다. 또한 홍난파의 당시 기관(교육, 종교, 단체 등)에서의 활동사항들을 항목화하고 시각화시켜 네트워크로 활성화 시키면, 당시 서양음악 작곡가들 사이에서의 새문안교회, 연악회, 황성기독교청년회 등 종교기관에서의 활동상황이 활성화되고, 이를 통해 기독교의 위치와 이를 토대로 만들어진 사회 구성을 유추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홍난파의 경우 그의 음악관련 활동과 연관된 단체나 기관의 관계망을 시각화하면 다음과 같다(그림 4).



[그림 4] 홍난파의 음악활동 네트워크의 시각적 관계망

이 관계망을 통해, 일본의 지배 하에서 일본과 미국으로의 유학을 택한 이 시기 서양음악 작곡가들의 경로를 추적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애국단체, 친일단체와의 연관성이 한눈에 시각화됨으로써, 일본의 정책변화와 여기에 따른 지식인들의 대응 등을 생생하게 접할 수 있게 된다. 이 과정에서 그동안 중앙사에 밀려 크게 빛을 보지 못했거나 중요성이 떨어진다고 여겨지던 역사적 인물과 유적들이 다시 발견될 수 있다.²⁰⁾ 물론 이 콘텐츠가 그 시대의 가곡이 갖고 있는 다양하고 중층적인 의미체계를 완벽하게 재현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다양한 영역들과의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해 중심과 주변의 위치를 재조정 할 수는 있을 것이다.

필자가 《봉선화》를 중심으로 한 음악문화콘텐츠의 기획을 통해 이야기 하고 싶었던 것은당시 가곡의 의미와 역할을 다양하게 읽어내려는 노력을 통해 오늘날의 우리의 삶과 정서를 점검해 보고자 함이다. 가곡이 탄생하고 발전하던 1920년대와 1930년대는 국운이 기울고, 살림이 피폐해지던

20) 윤인향, “역사문화콘텐츠에서 문화정보학,” 50-51.

시절로, 사람들은 가곡의 선율과 가사에 의탁해 눈물을 흘렸던 시기였다. 가곡에 스며있는 기본 정서는 흥난파의 다른 가곡들 《고향생각》, 《옛 동산에 올라》, 《사랑》, 《그리움》, 《사공의 노래》 그리고 동요 《고향의 봄》, 《낮에 나온 반달》 등에서도 느껴지듯이, 잔잔한 슬픔과 비통함이라 할 수 있다. 표면적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가난한 일상, 소박하게 표현되는 한국의 자연예찬, 고향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 등의 정서가 묻어나 있다. 당당하게 권력을 비웃고, 세상을 호통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러한 평범한 이야기와 평범한 음악적 구성의 가곡들이 한국인 내면의 비극적 장엄성을 오히려 더 드러내주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 이것은 세월이 흘러도 남아있는 우리의 정서의 한 단면이다. 일제 식민지시기를 거치고, 6.25전쟁, 남북분단이라는 현실 속에 있는 사람들의 내면의 비극이 음악으로 소통되고 있는 것이다. 시대를 초월하여 《봉선화》가 사랑받고 있는 이유일 것이다. 《봉선화》를 통해서 만나게 되는 다양한 양상들, 이것이 디지털 상에서 네트워크를 통해 더욱 활성화 되어 갈수록 우리의 근대 음악역사는 더욱 풍요로워질 것이다.

V. 결론: 상관된 지식을 만들어가는 과정

기술력과 인문학적 상상력, 구성력, 창의력을 바탕으로 되새김질해야 하는 수많은 음악유산들이 우리 곁에 산재해 있다. 음악문화를 이루고 있는 고악보나 자료들은 도서관과 연구실에만 존재해야 할 유물이 아니라, 미래로 나아갈 거대한 소재이며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디지털 음악 연구가 개별정보를 자세히 구현하는데 치중해 왔다면, 이제는 여기에서 벗어나 음악을 만들고 향유하였던 역사적, 문화적 맥락과 함께 텍스트의 사회학적인 상황을 디지털 환경 안에서 구현하려는 시도를 벌여야 한다.

그 예로서, 필자는 “한국 근대가곡으로의 여행, 《봉선화》를 찾아서…”라는 테마로 1920~1930년대에 불린 한국가곡의 주체와 흐름을 디지털 환경 내에서 역사적 정보와 접목시켜 서사적 방식으로 활성화시키고자 하였다. 단순히 한국가곡에 대한 정보(인물, 악보, 가사, 음원 등)를 디지털 환경에

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하는 매체 변환의 차원이 아니라, 이러한 정보를 내용에 따라 재구성하여 의미 있는 구성체로 만들고자 하였다. 이러한 음악문화콘텐츠 영역을 통해 음악문화의 역동성과 가변성이 끊임없이 포착될 것이며 새로운 문화가치가 창출될 것이라 생각한다.

디지털이라고 하는 새로운 환경은 받아들여야만 하는 연구 환경 중 하나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금까지 근대 가곡을 주제로 한 음악문화콘텐츠 기획을 모색해 보았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이 시대의 주요 작곡가, 정전을 나름의 기준으로 선별함과 동시에 중심과 주변의 기준을 재검토해 보는 학문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음악연구자들의 관심과 참여가 이루어진다면 인터넷을 통한 보다 광범위한 문화전파의 효과도 기대해볼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이러한 음악문화콘텐츠가 다양한 주제별, 영역별로 개발되어 각급 교육현장에 활용된다면 ‘스마트’한 한국교육의 문화가 세계 교육문화의 모델로 자리 잡게 되지 않을까 기대한다. 앞으로 다양한 성격의 디지털 음악학 프로젝트가 수행되기를, 많은 결과물들이 연구와 교육, 세대 간의 공감, 문화전파 등에 쓰여 지기를 기대하며 음악문화콘텐츠 기획이 제작으로 이어져 문화산업에 활용되기를 바라본다.

한글검색어: 디지털 인문학, 음악문화콘텐츠, 디지털 음악학, 한국 근대가곡, 봉선화, 네트워크, 스토리텔링, 인문학적 재구성, 데이터 마이너, 지식 코디네이터, 스토리텔러

영문검색어: digital humanities, musical culture contents, digital musicology, Korean modern songs, Bongseonhwa (Garden Balsam), network, storytelling, humanities reconstruction, data miner, knowledge coordinator, storyteller

참고문헌

- 김기덕. “자료의 힘과 역사적 상상력: 역사학과 문화콘텐츠.” 『인문학과 문화콘텐츠』. 서울: 다할미디어, 2006.
- 김양환. 『홍난파 평전』. 서울: 남양문화, 2009.
- 김창욱. 『홍난파 음악연구』. 서울: 민속원, 2010.
- 김현. “디지털 인문학: 인문학과 문화콘텐츠의 상생구도에 관한 구상.” 『인문콘텐츠』 29 (2013): 9-26.
- 노동은. “홍난파.” 『친일파 99인』 제3권. 서울: 돌베개, 1994.
- 류철균. “스토리텔링, “소통하는 활동” “삶의 정체성 찾기.” 『문화일보』 2015년 1월 13일
- 민경찬. “한국 근대음악과 고향.” 『한국문학연구』 30 (2006): 75-99.
- 오문석. “한국근대가곡의 성립과 그 성격.” 『현대문학의 연구』 46 (2012): 115-143.
- 오장근. “문화콘텐츠와 인문학적 분석 도구.” 『인문학과 문화콘텐츠』 서울: 다할미디어, 2006.
- 유현주. 『하이퍼텍스트: 디지털미학의 키워드』.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3.
- 윤인향. “역사문화콘텐츠에서 문화 정보학.” 한국과학기술원 석사학위 논문, 2009.
- 장노현.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이야기 형식: 하이퍼텍스트 서사』. 서울: 예림기획, 2005.
- 한국연구재단. 『2014년도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디지털 인문학 사업 신청요강』. 서울: 한국연구재단, 2014, 1-27.
- 한상우. 『기억하고 싶은 선구자들』. 서울: 지식산업사, 2003.
- 홍정수. “한국음악의 관점(7): 홍난파와 윤이상의 사회 1.” 『음악과 민족』 44 (2012): 13-55.
- 遠藤 喜美子. 『鳳仙花』. 東京: 文芸社, 2002.
- Bessler, Heinrich. *Die Musik des Mittelalters und der*

Renaissance. Potsdam: Akademische Verlagsgesellschaft Athenaion, 1931.

Davies, Martin. "History as Narcissism," *Journal of European Studies* 19 (1989), 265-91.

Rosaldo, Renato. 『문화와 진리』(*Culture and Truth*). 권숙인 역. 서울: 아카넷, 2000.

Wegman, Rob C. "Historical Musicology: Is It Still Possible?." In *The Cultural Study of Music*. Edited by Martin Clayton, Trevor Herbert and Richard Middleton. New York: Routledge, 2003.

<http://www.culturecontent.com> [2015년 2월 20일 접속].

<http://londonlives.org> [2015년 2월 20일 접속].

국문초록

음악연구의 새로운 가능성, 음악문화콘텐츠 창작:
“한국 근대가곡으로의 여행, 《봉선화》를 찾아서”

신 혜 승

한국 근대가곡의 원형에 대한 디지털 상에서의 보존 작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데이터베이스 기술력을 통해 디지털화된 정보들을 인문학적인 재구성을 통해 음악문화콘텐츠 창작이라는 단계로 진전시켜 보고자 함이 이 논문의 목적이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음악유산의 발굴과 체계화에 머물지 않고, 그 활용에 있어 음악연구가 할 수 있는 가능성 중 한 가지를 제시해 보고자 한 것이다.

그 예로서, 필자는 “한국 근대가곡으로의 여행, 《봉선화》를 찾아서…”라는 테마 아래, 1920~1930년대에 불린 한국가곡의 주체와 흐름을 디지털 환경 내에서 역사적 정보와 접목시켜 서사적 방식으로 활성화시키고자 한다. 단순히 한국가곡에 대한 정보(인물, 악보, 가사, 음원 등)를 디지털 환경에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하는 매체 변환의 차원이 아니라, 이러한 정보를 내용에 따라 재구성하여 의미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지식화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 것이다.

Abstract

**The Renewing of Musical Heritage,
Creating Musical Culture Contents:
“Travelling to Korean Songs
in search of *Bongseonhwa (Garden Balsam)*”**

Shin, Hye Seung

Today the digitalization of the archetypes of Korean modern songs are undertaken actively. This paper aims to advance digitalized information about musical culture contents through the humanities reconstruction.

To this end, this paper intends to trace the development of the musical culture contents, for example, using a case study of “Travelling to Korean Modern Songs in search of *Bongsunwha (garden balsam)*...”. Thereby, it adjust historical information on the stream of Korean modern songs from the 1920 to the 1930 to a digital environment, in order to activate the narrative context of Korean modern musical culture.

Thus this paper will give an illustrative example of establishing a database through the humanities reconstruction. This example, will add a new dimension of creating meaning, beyond the mere outcome of changing the media, the outcome that one can obtain information about Korean modern songs, i.e. composers, poets, lyrics, scores, and musical sound in a digital environment. In doing so, this paper will provide a potential of music studies as a new theoretical tool for utilizing musical heritage, and enhance our understanding of Bongsunhwa.

[논문투고일: 2015. 3. 1]

[논문심사일: 2015. 3. 20]

[게재확정일: 2015. 3. 27]